

숨과 심

삼애교회 목회서신

2020. 10. 11. 제45호

연세대학교 삼애교회
편집 발행인 김동환
031-975-1885, 1884(fax)
<http://samae.yonsei.ac.kr>
love3@yonsei.ac.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신앙생활의 윤리적 기준

출애굽기 20:3-4, 7-9, 12-17; 빌립보서 3:4b-9; 마태복음서 21:42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율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광야로 탈출하게 되자 독립 민족으로서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열 가지 계명 곧 십계명을 두 돌 판에 새겨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헌법과 같은 최상 법률이었으며, 또한 실정법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 천 년이 지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십계명은 더 이상 실정법으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앙인들에게 십계명은 일종의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지침'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지침으로서 십계명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연수가 꽤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본인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신앙생활 연수가 꽤 되신다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해도 50점은 넘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70점이나 80점 이상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십계명을 신앙생활의 기본 윤리지침으로 잘 준수하며 살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십계명을 곱씹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습니까? 둘째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에는 그리 별별 떨며, 재물의 신이라고 불리는 맘몬 없이는 못살고, 어떤 때는 맘몬의 노예

가 되어 찢쩍맵니까? 솔직히 하나님 없이는 며칠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단 하루도 못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돈이 바로 다른 신이며 우상 아닙니까?

셋째로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나요?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세상에서 나만 너무 힘들어 보일 때 하나님을 심히 원망한 적 없나요? 그때 그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른가요?

넷째로 안식일 곧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니까? 물론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다면 주일 성수는 잘 하시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시간을 지키시어 오전 11시에 주일예배를 잘 드리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말씀 그대로 거룩하게도 잘 지키십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쉬(kodesh)로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속적 논리와는 다른 차별된 영적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예배를 드리며 주일성수를 잘 하시겠지만, 주일 전체를 거룩하게, 즉 세상과는 구별된 날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섯째로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도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모두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정한 효이며 공경인데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섯째로 살인한 적 없으시다고요? 육신적으로 살인한 적이야 없겠지만, 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여 큰 상처를 줌으로써 그의 심령을 죽인 적은 없나요?

일곱째로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27-28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간음하지 말아라”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당시 남성중심 사회라 대상이 남자뿐이었으나, 이는 남자, 여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덟째로 정말로 도둑질하지 않았나요? 어린 시절 별 생각 없이 친구 물건 숨쳐 본 적 한 번도 없나요? 길에 떨어진 십 원 혹은 백 원 혹은 천 원 혹은 만 원짜리 보고 땡잡았다고 챙겼던 것은 어찌 보면 경미한 도둑질 아닌가요? 물질적인 것 말고 남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도용한 적은 혹시

없었나요? 만약 교사나 학생이나 연구자라면 책이나 기사나 논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남의 생각을 도적질하는 미세한 표절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신가요?

아홉째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하지는 않았다고요? 보편적인 용어로 풀어 말해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혹은 불리하게 되지 않으려고 남에게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나요? 행여나 남을 위한답시고 소위 선의의 거짓말(white lie)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의도는 좋았겠지만 그것도 결국 거짓 증언 아닌가요?

열 번째로 정말로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았나요? 십계명 그대로 보니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17절)고 적혀 있는데 정말로 탐내적 없나요? 그럼 내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직접 혹은 TV 프로그램에서 보았을 때 부러워한 적 없나요?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좋은 집에 살지?’ 혹은 ‘왜 저렇게 좋은 차를 몰아?’ 하면서 부러움을 넘어서 묘한 질투심 같은 것 느낀 적은 없나요? 그게 탐낸 것 아닌가요?

자, 다시 십계명이 있던 나의 신앙생활 기본 윤리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몇 점이 나오시나요? 아까는 적어도 50점 이상, 많게는 70점이나 80점 이상은 나오리라 예측했었는데, 지금은 몇 점이 나오시나요? 솔직히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잣대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다보면 우리 모두는 빵점이 납니다. 빵점이니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 심각한 죄인이라서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빵 점을 무효로 하고 합격시켜주실 신묘막측(神妙莫測)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드라마틱한 반전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3:16).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죄인이 오직 믿

음으로 의인이 되는 반전, 율법으로는 빵점짜리 신앙인이 오직 은혜로 합격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영광스런 반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놀라운 반전, 이 기적 같은 반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실현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이 반전을 드라마틱하게 체험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삶의 반전을 소개합니다: “나는 난 지 여드레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रो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빌 4:5-9).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렵니까? 십계명과 같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잘 지켜보려 애쓰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내가 노력해봤자 그 밥에 그 나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정의로운 율법을 넘어서는 희생적 사랑을 자신의 죽음으로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세상의 윤리적 기준으로는 버린 돌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으로는 머릿돌이 되신 구세주 예수를 바라보고(마 21:42), 내가 아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은 2천 년 전 사도바울에게도, 5백 년 전 종교개혁의 기로에 선 마르틴 루터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인생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선택입니다. 부디 올바른 선택하셔서 올바른 신앙인의 윤리적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 김 동 환(2020. 10. 4. 삼애교회 주일예배 설교)